‘국민’ 담론 형성과 균열의 기원

- 『매일신문』을 중심으로 -

박 대 현*

차 례

I. ‘국민’ 담론형성과 타자의 분할선	III. ‘국민’의 분열과 위생담론, 그리고 ‘마중군’
II. ‘국민’ 담론과 죽음의 표상, 그리고 분할선	1. 위생담론의 형성과 반민증성
1. ‘국민’ 담론의 형성 - 전구경쟁의 내면화와 죽음	2. ‘국민’의 분열과 ‘마중군’의 ‘도주’
2. ‘국민’ 안의 죽음과 바깥의 죽음 - 근대적 죽음의 분할선	IV. ‘국민’ 담론의 형성과 근대의 ‘트라 우마적 기억’

I. ‘국민’ 담론형성과 타자의 분할선

근대계몽기 국민 담론 형성과정에서 조선인 일반을 통칭하는 데 쓰였던 어휘들은 주로 ‘백성’, ‘인민’, ‘동포’, ‘국민’ 등이었다. 박태호에 따르면,¹⁾ 『독립신문』(1896.4.7)에서 이들 용어는 유사한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국민’은 ‘백성’이나 ‘인민’과 달리 왕이나 황제에 귀속되는 의미를

* 낙동고등학교 교사

1) 박태호, 『근대계몽기 신문에서 영토적 공간의 개념 형성』,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이화여대한국문화연구원, 소명출판, 2006), 161~163쪽.

지니지 않는 용어이다. 국민은 처음에는 주로 ‘니외국민’이란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국경단위의 인민을 구별하여 지칭하는 명사였지만, ‘니외국민’은 1899년에 이르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다. 이때부터 ‘니외’를 삭제한 ‘국민’은 자국국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은 자국국민의 직분과 의무를 환기시키는 계몽적이고 규범적인 용법이 강화된 단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같은 시기의 『매일신문』에도 적용시키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1890년대 후반은 ‘국민’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이 세계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만국공법을 수용함으로써 과거 중화론적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근대 국가로의 인식체계를 준비해나가기 시작하였음을 상기할 때, 국민 담론 형성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조선인민들을 국왕 중심의 수직적 질서로 위계화 하지 않고, 타 국가를 향한 대타의식을 내재한 통합체로서의 ‘국민’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국민 담론 형성은 근대국가 형성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유길준은 『서유견문』(1895)에서 “사람의 권리는 자기 스스로 손상하기 전에는 만승천자의 위엄이나 일만 군사를 대적할 용맹으로도 흔들거나 빼앗을 수 없다.”²⁾라고 ‘국민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다. 국왕일지라도 국민의 권리를 훼손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서유견문』이 금서(禁書)로 지정될 만큼 혁신적인 근대사상이었다. 이처럼 서구의 근대사상이 유입해오던 시기에 계몽주의자들은 서구문명에 대한 새로운 각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신문을 통해 계몽담론을 설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매일신문』(1898.4.9)의 전신인 『협성회회보』(1898.1.1)³⁾ 제1호 논설의

2) 유길준, 『서유견문』(허경진 역, 서해문집, 2005), p.136

3) “『협성회회보』는 『미일신문』의 전신(前身)임에는 틀림없지마는 그 자체가 신문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보’이며 ‘학생회잡지’이다. 다만 일반 월간잡지와는 다른, 보도와 비판을 중심으로 한 주간 시사잡지로 볼직하다.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한성순보(漢城旬報)』(1883.10.31 창간)와 같은 주간신문은 있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 기명한 나라에서 들은 인민 교육 하는거슬 데일 요무로 아라 괴어이 공부 아니하는 빅성이 적도록 힘을 쓰느니 대더 인민을 교육 하는거슨 그 사름들노 햏여곰 다 나라에 유익흔 사름들이 되게 햏이라”⁴⁾라고 진술하고 있다. 『협성회회보』창간 논설이 “나라에 유익흔 사름”을 길러내기 위한 충군애국 의지와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계몽의 열정을 드러내고 있었듯이, ‘국민’을 형성하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가 국문담론이며 이는 곧 교육담론과 바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독립신문』이 그리는 조선의 자아상은 대단히 부정적인⁵⁾ 반면에, 『민일신문』은 매우 긍정적인 국가상을 일부 지향하고 있었다. 예컨대, 『독립신문』류의 부정적 자아상으로 출발한 41호의 논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엇지 외국 사름만 잇다 흐리오 우리 대한 인민들도 이국하는 마음잇는 증거를 디강 말흐노라”⁶⁾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을 부정하고 철저히 서구문명을 절대선을 바라보았던 『독립신문』과 달리, 『매일신문』은 자기긍정의 인민상과 국가상을 일부 지님으로써 조선을 국민적 단일체로 수렴하고자 하는 근대적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890년대 후반의 근대계몽의식이 ‘민족’으로 수렴되기 이전의 시기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1890년대 ‘민족’이라는 개념은 단 한 번도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앞서 말한 것처럼 대신 동포, 인민, 백성, 국민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⁷⁾ 대타적 외세를 내재한 국가,

『협성회회보』와 같은 주간잡지는 처음이라고 하겠다.”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1』(서울:현암사, 2004), p.50

4) 『협성회회보』(논설), 1898.1.1.

5) “『독립신문』은 조선인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① 거짓말 잘한다. ② 의심이 많으며 표리부동하다. ③ 오래도록 사혐(私嫌)을 품는다. ④ 객기를 부려 사람을 잘 속인다(1899.1.18)” 정선태, 「『독립신문』의 조선·조선인론」,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소명출판, 2004), 185~186쪽.

6) 『매일신문』(논설), 1898.5.16.

7) 『독립신문』을 검토한 이화여대 한국문화 연구원의 자료에 따른 것이다. 권보드래, 「동포(同胞)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성」,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민족, 국민의 빈도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1900년대의 상황은 1905년을 전후한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1890년대 후반의 상황은 민족적 대타의식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이전으로서 국민적 단일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근대적 규율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타자로서의 외세는 문명국가로서 각종 이권을 잠식하는 사회진화론적 우월의 존재로 인식되었을 뿐, 제국주의의 침략적 타자로서 심각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시기는 문명개화담론이 계몽주의자들의 담론적 층위에서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대중적으로 살포되는 시기였다. 그 중심이 된 매체가 바로 『독립신문』과 『미일신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민족의 적대적 타자에 대한 배척과 저항을 주장하는 일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의 문화적, 이념적, 생활양식적 타자의 배제를 통한 새로운 국민의 문화적, 이념적, 생활 양식의 통합에 박차를 가했다.⁸⁾ ‘국민’적 통합은 적대적 외세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동일화 욕망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근대계몽담론에 의해 발생한 조선내부의 타자는 근대국민담론의 균열을 곳곳에서 일으키기 시작한다. 논설을 통한 담론적 실천은 실상 중간계급에서 발화되고 수신되는 사안이며⁹⁾, 일반 기층민중들의 삶은 계몽담론으로부터 소외되고 타

변용』(한국문화연구원, 소명출판, 2004), 103쪽 참조『매일신문』의 경우에도 필자가 검토해 본 결과 ‘민족’이라는 용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다른 용어의 구체적 빈도수는 정확하게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독립신문』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리라 판단된다.

8) 박노자, 『개화기의 국민담론과 그 속의 타자들』, 이화여대한국문화연구원, 앞의 책, 228쪽.

9) 일반적으로 새로운 민족적 고무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정제와 후진성 때문에 좌절당한 중간계급출신이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처럼 자신들의 나라를 ‘민족(국가)’로 만들어 경제적 발전을 고무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출구로 보았다. 이때 중간계급은 역시 불만에 찬 기층민중인 노동자와 농민을 선동하고 고무할 수는 있었으나, 기층민중은 곧 새롭게 등장한 이들 지배적 중간계급과도 쉽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국가의 계몽과 단결은 항상 기층민중을 타자화의

자화될 수밖에 없었다. 근대계몽담론에 포섭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끊임없이 『매일신문』의 잡보를 통해서 출현한다. 논설이 계몽담론의 생산층위였다면, 잡보는 인민들의 구체적 생활세계를 드러냄으로써 계몽담론의 자연스러운 확대와 유포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잡보는 오히려 계몽담론의 분할선 외부에서 근대의 타자로 전락한 기층민층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으로 결코 편입될 수 없었던 국민 바깥의 ‘타자’들은 통합에 따른 배제의 원리에 의해서 ‘신민’(臣民)도, ‘국민’도 아닌 존재로서 조선에 위치해 있었다. 1890년대는 아직 외세를 대타로 한 민족의식이 발현되기 이전이었으므로 민족국가를 구체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서구 열강에 동화되고자 하는 근대를 향한 의지만이 추동됨으로써 내부의 타자들을 생산해내고 있었다. 이 타자들은 근대 국민담론의 바깥에 위치해 있으며, 근대 국민담론의 분할선 너머에서 여전히 소외된 전근대적 인민에 불과할 뿐이었다. 따라서 이 글은 국민담론의 경계와 분할선을 따라가면서 계몽된 ‘국민’과 그렇지 못한 계몽의 타자들인 기층민층들의 삶을 국민, 죽음, 위생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미 자명화된 근대국가의 트라우마를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이 호출을 통해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국민을 가르는 분할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II. ‘국민’ 담론과 죽음의 표상, 그리고 분할선

1. ‘국민’ 담론의 형성 - 전구경쟁의 내면화와 죽음

근대계몽의 분할선은 아직도 선명한 유동체로 남아있다. 다만, 근대계몽의 과정은 수많은 개인들을 계몽의 담론 속에 포섭하고 규율함으로써

굴레 속에 빠뜨리는 행위는 세계사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크리스 하먼, 『민족문제의 재등장』(배일룡 역, 책갈피, 2001), 31~34쪽.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근대기획이 진행될수록 분할선 너머의 영역은 점점 축소되고 그 타자성은 더욱 뾰뚱해질 수밖에 없다. 뾰뚱해질수록 더욱 축소되는 타자의 영역은 그 뾰뚱성이 더해지면서 근대 바깥으로 추방당하기도 한다. 근대의 규율권력이 자행하는 타자에 대한 억압은 ‘생체권력’이라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획득하고 있으므로 근대의 타자들을 부지불식간에 은닉·은폐하고 감금하기 때문이다. 근대계몽기인 1890년대 후반은 근대를 향한 계몽의지가 각종 매체를 통해 담론의 층위에서 일상의 구체적 영역까지 살포되기 시작하던 시기이므로, 근대 계몽의 분할선이 서서히 축조되어가기 시작하였다.

근대계몽기의 신문이 근대계몽담론을 설파하는 주된 전략은 바로 논설이었다. 그리고 1890년대 후반에 『독립신문』을 비롯한 『매일신문』의 주요 근대기획은 ‘서사적 논설’을 통해 문명개화=국민화의 담론을 내면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 전략은 누가 ‘국민’이며 어떻게 ‘국민’이 되는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분할선, 말하자면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는 동일화와 차이화, 수렴과 배제의 정치학이 작동하는 장소의 역할을 한다.¹⁰⁾ 계몽담론이 ‘서사적 논설’을 통해 내면화되고 조선인들의 잡다한 일상과 사건이 ‘잡보’의 형식으로 기록되는 근대계몽기의 신문은 계몽담론이 조선인의 일상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작용을 한다. 논설과 잡보는 계몽담론의 층위와 조선인이 살아가는 일상의 층위가 지니는 간극을 선명하게 대비시켜주면서 근대계몽담론을 내면화해가는 조선인과 그렇지 못한 조선인의 삶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는 것이다. 그것은 근대계몽기의 국민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죽음’의 표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앞서 말했듯이 『매일신문』 발간 시기에 아직 ‘민족’이라는 어휘가 쓰이지 않고, 국민, 인민, 동포, 신민, 백성 등의 어휘가 주로 쓰이고 있다는

10) 최현식, 『근대계몽기 서사문학에서 민족국가의 상상력과 매체의 상관성』, 『현대문학의 연구』 23집(한국문학연구학회, 2004.7), 169쪽.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의 신문은 아직까지 외세의 제국주의적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1900년대『대한매일신보』에 이르러 제국주의적 본질을 파악하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등장한 것을 보면, 1890년대 후반은 제국주의적 외세에 대한 적대적 민족감정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르낭의 말대로 관세동맹이 조국이 될 수 없듯이 민족에는 감정적인 면이 있으며,¹¹⁾ 강한 ‘민족’적 정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대적 타자를 향한 통일된 ‘민족’ 감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1890년대 후반의 조선은 서구근대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이었고¹²⁾ 동일시의 대상으로도 바라보았으므로, 근대 ‘민족’국가를 구성할 만한 강력한 감정적 토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각국에 만이 유람 하고 온친구가 말하되 남의 나라 인민들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심장에 가득하야 심지어 구루마 끌고 기계 닥가주며 버러먹는 자도 만일 제나라이 남의 나라와 혼단을 열어 싸흘 지경이면 옷슬 벗서 파라셔라도 얼마식 병비를 즈원하야 보티며 아무도록 제 나라 흘 니기도록 주선 하며 몸을 스스로 허하여 전장에 나아가 죽기로 밍세 하고 외적을 막으려 하니 이는 이국 허기를 제 목숨보다 더 중히녁이는 비라

우리나라 인종은 그러치 못하야 서로 식기하며 서로 모히 하야 제나라 동포 씨리도 다각각 같동니나니 엇지 희연치 안으리오¹³⁾

위의 논설은 “남의 나라 인민들”과 “우리나라 인종”의 “이국 허기”의 차이를 보여준다. “남의 나라”의 애국은 단순한 “이국”이 아니라, ‘민족 국가’를 상정한 ‘이국’이다. 제국의 침략과 더불어 발발한 전쟁이 ‘민족국

11) 에르네스트 르낭, 『민족이란 무엇인가』(신행선 역, 책세상, 2002), 78쪽.

12) 서구열강의 조선에 대한 이권침탈에 대한 경계와 위기의식으로 인한 비판은 고조되었으나, 이 시기 유입된 사회진화론에 의해서 정당한 세계경쟁원리로 보았다. 따라서, 근대로의 진입을 통해 이들과 동등한 국가적 힘을 지니는 것이 이 시기 논설의 주된 논조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3) 『매일신문』(논설), 1898.5.16.

가'의 성립을 강화해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위의 논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애국'의 유무보다는 서구열강의 "익국"과 조선의 그것은 근본적인 질적 차이를 지닌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용사의 묘지와 국기, 그리고 국어, 신문, 소설, 인쇄매체 발달 등에 의해서 구성되는 민족이 '상상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주장¹⁴⁾을 역으로 생각하면, 묘지가 환기하는 애도의 기억들이 공동체를 위한 의무와 노력을 부과하는 민족적 추억을 구성함¹⁵⁾으로써 '상상의 공동체'를 실재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당시의 조선이 제국의 야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전쟁을 통해 '민족적 추억'을 획득한 서구열강과는 확연한 상황적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위의 논설은 국가를 위한 서구열강의 (민족적) "익국"을 조선인 역시 지닐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은 "충군이국"의 전근대적 차원의 애국에 머물러 있으며, 일상적 층위에서 "충군이국"의 내면화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경우 전통국가의 주민들은 그들 스스로 그 국가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권력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¹⁶⁾ 다시 말해, "남의 나라"의 "익국"이 지니는 민족담론의 내연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근대 민족국가를 성립하는 과정 자체가 서구열강과 조선은 역사적 토대가 달랐기 때문이다. 위의 논설은 이러한 근대계몽기 조선의 상황 속에서 백성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결집시키고자 하는 '국민' 담론의 층위를 잘 보여준다. 논설의 '국민' 담론형성은 '전쟁'과 죽음의 상징성을 이용한다. 유럽의 근대국가 형성기에 수많은 전쟁이 벌어진 것을 떠올린다면, 그리고 제국주의적 팽창이 식민국가를 둘러싼 전쟁의 연속인 점을 생각한다면 전쟁과 근대국가의 형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¹⁷⁾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죽음은 모두 나라

14)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윤형숙 역, 나남출판, 2002) 참조.

15) 에르네스트 르낭, 앞의 책, 81쪽.

16) 안쏘니 기든스, 『민족국가와 폭력』(진덕규 역, 삼지원, 1993), 247쪽.

17) 오선민, 『전쟁서사와 국민국가 프로젝트』, 『국민국가의 정치적 상상력』(이승원

를 위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임을 강조한다.

38호 논설¹⁸⁾은 군사에게 “그예만 굴아치지 말고” “충군이국”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군수가 되어 나라를 위하여 죽는것시 세계에 영광 인줄을 알아 싸움을 당하거든 아모토록닷토어 나아가 압흐로 충을 맞져야 영광이지 뒤를도라 보다가 등에 충을 마즈면 세상에 천흔 장부가 되는줄노 참 맛게 흘것”을 주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충군이국하는 마음” 병정들로 하여금 신문을 보게 함으로써 내면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일시를 당하야 주어 신문을 보게하여 위선 너의 시세를 알아야 군스 노릇을 하겠고 또한 병정을 위하여 따로 몇몇군더 연결장을 설치하여 시를 당하고 각히 모혀 충군이국할 목적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인데, 신문을 통해 세계의 시세(時勢)를 정확히 판단함으로써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정확히 파악하고, 연설을 들음으로써 충군애국의 마음을 더욱 고양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애국의 정점은 죽음임을 역설하고 있다. 죽음이 지니는 상징성은 ‘애도’라는 정서적 환기를 통해 ‘충군애국’하는 국민적 정서를 결집시키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저 사람이 세상에 나미 필경 한번 죽는날은 저마다 잇는것시니 나라를 위하여 한번 죽는것시 영화로운 죽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매일신문』은 스스로 국가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피동적인 ‘신민’(臣民)에 겨우 지나지 않았던 조선인들을 “티극 국괴”라는 상징적 기호를 직시하게 함으로써 ‘신민’에서 ‘국민’으로의 형질전환을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충군애국’¹⁹⁾이 단순한 ‘신민’(臣民) 의식이 아니라, 근대 ‘국민’ 의식에 가까워

의, 소명출판, 2004), 133쪽.

18) 『매일신문』, 1898.5.13.

19) 개화파의 총체적 사상 맥락에서 보면, 그들의 ‘충군애국’은 폐쇄적 파벌 예고이즘에 입각한 충성의식을 불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충성심을 결집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모든 민중이 보국안민하는 충성심을 발휘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신분차별의 폐지, 봉건적 수탈의 폐지, 군권에 대한 민권의 확장과 같은 사회·경제·정치적 객관적 조건의 개혁을 조건으로 하는

지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열강을 의식하는 다른 논설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11호 논설²⁰⁾이 “우리나라 동포들은 아모조록 일심하여 동양에 일본과 서양에 영미국을 부러말고 동등으로 생각하여 못된일 하는놈은 세계에 형세를 못하게하고 무례히 내나라를 더하여 실례하는 놈이 잇거든 분흔只음을너여 더적홀뿐이 아니라”, “일심하여 학문을 힘쓰고 분기를너여 놈이 나를 뺄치거든 나도 더적하여치고 놈이 내나라를 더하여 실례하거든 몸이 죽더라도 분푸리 홀싱각들하시고 무슨일이 던지 올흔일에 죽는것은 영광으로 아시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논설의 내용처럼 근대신문은 일본과 서양의 영국·미국 등의 국가적 타자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민’에서 ‘국민’으로 전화해가는 계몽담론의 구체적 양상을 드러내 보여준다.

2. ‘국민’ 안의 죽음과 바깥의 죽음 - 근대적 죽음의 분할선

‘죽음’의 표상은 국민국가를 출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인간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인류의 방어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강구되어왔지만, 근대에 이르러서는 국민국가만큼 개인적 죽음의 망각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장치는 없을 것이다. 에드가 모랭이 말한 “시민적 불멸성”²¹⁾이란 다름 아닌 개인의 죽음을 보다 국민·국가 단위와 합치하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미래의 세대 속에서 불멸하리는 믿음이며, 이것이 근대시민사회의 무의식적 토대가 된다. 그래서 무명용사의 기념비와 전쟁기념관은 죽어가는 개인을 기억하고 찬양함으로써 ‘죽음의 미학화’를

것이였다. 다시 말해, 개화파의 ‘충군애국’은 평등한 ‘국민’의 형성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부국강병론에 입각한 독립사상 역시 국민적 통합사상을 매개로 하여 군권의 제약과 민권의 확장에 의한 평등한 국민국가 형성의 사상, 곧 ‘반봉건’적(근대적)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상과 연결된 문제였다. 김영작, 『한말 내서 널리즘 연구』(창작사, 1991), 134~136쪽, 참조.

20) 『매일신문』, 1898.3.2.

21) 에드가 모랭, 『인간과 죽음』(김명숙 역, 2000), 50쪽.

손쉽게 집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죽음만이 순정한 죽음이 라는 죽음의 위계화가 성립된다. 죽음의 이러한 위계화가 인민을 국민으로 변형시키는 중심회로이기 때문에, 죽음의 위계화 없이 국민이 된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다.²²⁾ 따라서 국민담론 형성과정에 있어서 죽음의 표상을 재정립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근대국민 형성 과정에 있어서 죽음의 표상이 부각되는 까닭은 제국주의의 확산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했던 사회진화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진화론은 인종과 국가간의 경쟁을 통해 오직 강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전구경쟁의 논리를 정당화함으로써 서구열강과의 동일시 욕망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나라를 위해 죽음까지도 무릅쓰겠다는 죽음의 표상화를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음은 결국 전구경쟁(全球競爭)에서 생존하기 위한 국민적 각오를 표상하는 것이었다. ‘우승 열패’, ‘약육강식’의 정당성은 폭력적 경쟁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구실을 하며, 근대 국민담론 형성 시기에 드러나는 폭력적 양상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근일에 익오기넘어 늦기천가에서 수빅명이 모혀 편싸흙들을 흐는디
 흑 돌을던져 싸호는 자도 잇고 흑 몽치로 치는자도 잇서 피츠에 성벽이
 대단하여 방관호는 수천명 사람들이 즈미있게 녀이나 싸호는 자들은 머
 리가 씨여지며 다리가 부러지며 이들이 부스러지되 괴여히 이긔랴고호
 니 이긔치 우리 전국인민이 무슴일이던지 죽기를 무릅쓰고 일심으로호
 면 공전인들 엇지 겁낸다 흐리오²³⁾

석전(石戰)의 기원은 부족국가 시대부터라고 알려져 있다.²⁴⁾ 이러한

22) 공임순, 『식민지의 적자들』(푸른역사, 2005), 201쪽.

23) 『매일신문』(잡보), 1898.2.5.

24) 석전의 역사는 오래된 것이다. 정복전쟁에서 돌은 다양하게 이용된 중요한 무기였으며, 『수서(隋書)』에는 “해마다 정초에 패수(대동강) 언저리에서 임금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신하를 두 패로 나누어 석전을 벌였는데, 물 속에 들어가 수석

전통놀이가 조선을 경유하여 근대계몽기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에서 석전의 역사적 유구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석전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선시대에도 상당기간 금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매일신문』논설이 이 석전에 대해서 오히려 매우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위 논설은 우승열패, 약육강식이라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이미 내면화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싸호는 자들은 머리가 썩여지며 다리가 부러지며 이틀이 부스러지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의 석전은 여전히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 전투놀이였으며, 이러한 폭력적 양상을 두고 논설은 “우리 전국인민”의 “일심”을 강조하고 있다. 서구열강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죽기를 무릅쓰고 일심으로” 단합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 시기에 죽음의 폭력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배제되기 시작했으며, 폭력의 국가적 독점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고자 하는 근대문명의 원리는 보편적인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석전이 정월 대보름의 풍속에 지나지 않았지만 폭력이 ‘야만’적으로 난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충격적인 스펙타클이었던 것이다.²⁵⁾ 외국인들은 석전의 ‘폭력’에 주목하였으나, 위의 논설은 ‘석전(石戰)’에서 “전국인민”의 “일심”과 서구열강과의 치열한 경쟁을 읽어내고자 했다. 석전은 일종의 지구경쟁(全球競爭)의 알레고리였던 셈이다.

물론 이 석전은 1900년대 들어 일제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노골화되어

(水石)을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추격하였다.”는 고구려의 석전에 대한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의 세종은 석전 자발대를 모집하여 한때 유명무실해졌던 제도를 부활시켰다. 여기에 응모하면 천민은 신분의 굴레를 벗겨주고 양인에게는 벼슬을 주는 특혜를 베풀어 석전 자발대 수백 명을 확보하였다. 세종은 석전자발대를 두 패로 나누어 종로의 넓은 거리에서 패싸움을 벌이게 하고 종루에 올라가 구경하였다. 시합이 끝나면 이긴 쪽에 상을 내리고 다친 사람은 어의를 보내 치료 주었다. 이이화, 『한국사이야기·14』(한길사, 2003) 참조.

25) 이승원, 『학교의 탄생』(서울:휴머니스트, 2005), 192쪽.

가는 상황 속에서 일본을 겨냥한 전투와 다름없는 양상으로 치닫기도 하였으나,²⁶⁾ 위의 논설은 외세에 대한 구체적인 적대적 감정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1890년대에 일본에 대한 적대적 감정으로서의 민족담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과도 동떨어 있다. 위의 논설은 석전을 통해 전구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국민적 합심을 요구했던 것이며, 그것은 “죽기를 무릅쓰는” 강력한 국민적 “일심”(一心)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담론의 형성은 처음부터 균열을 안고 있었다. 『독립신문』과 『매일신문』에서 일관되게 조명되는 사건이 바로 독립협회와 황국협회의 갈등 양상이라는 사실은 ‘국민’담론 형성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에 모자람이 없다. 더구나 만민공동회는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하게 되는 일대 사건이 되었다. 하지만 독립협회와 황국협회의 갈등에서 보듯이 ‘충군애국’은 한 지점으로 단일화되지 않았으며,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를 실시함으로써 ‘신민’에서 ‘국민’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근대국가의 열정을 보여준 반면에, 황국협회는 이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각자가 주장하는 ‘충군애국’이 달랐음은 이들의 지향점이 근대와 전근대를 경계로 분할되어 있었을 말해준다. 그리고 독립협회와 황국협회의 갈등은 국민담론 형성과정에서 담론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 차원의 위계화된 죽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김덕구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다. 독립협회 지지자들과 황국협회의 충돌 속에서 보부상의 몽둥이에 김덕구가 맞아죽었는데, 이 죽음이 18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죽음의 양상이라는 김동식의 지적²⁷⁾은 전혀

26) “日前 平壤 옷밭지에서 多數의 兒童이 石戰場을 兩日連開하였던디 該地警察官吏가 此를 兒童의 暫時競戲로 知 ्ह야 置而不禁호였더니 第三日 壯丁 數千名이 集會호야 石戰을 又 開하는 故로 該地韓日巡查들이 此를 禁止코져 來到호야 劍을 揮호며 威脅을 表示호더니 滿陣中 高喊壹聲이 巡查를 迎擊호즈 호면서 萬掌石丸이 箇箇로 巡查를 向하야 下 호는지라 日巡查는 卽時 逃走하고 韓巡查 二名은 重傷호였다는디 石戰軍은 一齊解散호였고 傍觀者 二名은 被捉되엇다더라” 『便成 戰場』, 『대한매일신문』(잡보), 1910.3.5.

과장된 것이 아니다. 국민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김덕구의 죽음은 근대적 국민 담론 속으로 흡입된 인상적인 죽음으로서 죽음의 위계화, 혹은 죽음의 표상을 통해 국민담론을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중의 혁명적 파토스를 더욱 고양시키게 될 ‘사건’²⁸⁾으로 평가받는 김덕구의 죽음은 “일신은 살아서는 무명타가/ 죽었으니까 의사(義士)”²⁹⁾가 되었다는 진술로도 확연히 두드러지는 근대의 ‘국민’적 죽음이 다. 당시의 신문들도 각각 김덕구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상세히 싣고 있는데, 『독립신문』(잡보, 1898.12.06)(별보, 1898.12.02), 『황성신문』(잡보, 1898.11.29)(별보, 1898.12.03) 등과 마찬가지로 『매일신문』(논설, 1898)(잡보, 1898) 역시 김덕구의 죽음을 매우 상세하게 알리고 있다.

본월 이십 칠일에 독립협회 회원들이 스무소에 모히지라 일전에 부상
으로 더브러 정철이 되어 죽은 회원을 위하여 의조금을 내는데 잠간스
이에 일씩 오십여원이라 회원들이 장스 흐기로 흐렸으며 무덤 압히 석
비를 세우고 비면에 식이기를 충군 인국하다가 불행이 죽은 대한 독립
협회 회원이라 쓰즈하며 그 처즈스지 회중에서 먹여 살니기로 작명이
되었다 더라³⁰⁾

김덕구의 “무덤 압히 석비를 세우고 비면에 식이기를 충군 인국하다가 불행이 죽은 대한 독립협회 회원이라”고 쓰자 했다는 사실에서 김덕구의 죽음이 이미 위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덕구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가장 강렬한 “충군 인국”의 결과로서의 죽음인 것이다. 이러한 죽음의 위계화는 국민 담론을 추동하는 강력한

27) 김동식, 『신소설에 등장하는 죽음의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11집(한국현대문학회, 2002.6), 54쪽.

28) 정여울, 『근대계몽기 민족담론의 경계와 그 균열』, 『한국근대문학연구』8호(한국근대문학회, 2003.10), 38쪽.

29) 『독립신문』(잡보), 1898.12.6.

30) 『매일신문』(잡보), 1898.11.29.

표상을 획득하게 된다. 김덕구의 처자(妻子)까지 협회에서 먹여 살리기로 했다는 것은 김덕구의 죽음이 국민담론 속에서 강력한 상징성을 발휘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김덕구의 상여가 지나갈 때, “슈만명 인민이 모도 일커러 굴으디 우리도 김덕구씨와 함피 죽지 못흔 것이 극히 한탄 되고 후회되노라”하며 “눈물들을 흘니고 우논디 목들이 메여서 쇼러들이 잠기”³¹⁾고, “남대문밖 이문골 사는 김광터 등 죠고마흔 여러 으히들이 즌동 의사회(子童義事會)를 죠직 햏야 태극 국기를 놓히 들고 일전에 대한 의스 김덕구씨의 신테 장스 지너라고 운구 햏여 오는 중로에서 영접햏야 상여 압헤 서셔 산쇼 썈지 짜라들 오더니”³²⁾라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 김덕구의 죽음은 정서적으로 조선인민들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태극기’라는 국민국가의 표상과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 즉, 김덕구의 죽음은 국민담론의 중심에서 있는 것이다.

『매일신문』의 잡보란에는 무수한 죽음이 등장한다. ‘잡보’(雜報)가 그 이름처럼 잡다한 사건과 사고를 실는 신문의 한 꼭지였지만, 조선 시대의 각종 소문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신문에서 ‘잡보’가 지니는 위상은 매우 큰 것이었다. 그러나 잡보란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죽음들은 국민담론의 외부에 처해진 죽음이며, 이들 대부분은 국민담론 형성과는 무관한 민중들의 죽음이다. 그러므로 김덕구의 죽음은 이러한 죽음들과는 다른 차원의 위계 속에 들어 있으며, 그 외의 죽음들은 대개 국민담론의 바깥에 위치하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들 또한 매우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일전에 동서 중부골서 불이 낫논디 네살된 으히와 칠세된 으히가 불에 타죽어 그 어머니가 통곡흔는 정상이 차목허더라³³⁾

31) 「충의 감인」, 『독립신문』(잡보), 1898. 12.5.

32) 「으히들 충의」, 『독립신문』(잡보), 1898. 12.5.

33) 「매일신문」(잡보), 1898.2.5.

종친부 근처 홍오위장 아모는 본디 가세가적빈함으로 이런 껌년을 당
 햏야 호구 흘계척이 업서 몇칠을 굶다가 본월 이십삼일에 그부인이 쥬
 려 죽엇다니 듯기에 밍우 참혹 햏더라³⁴⁾

이번에 료슈가 창일햏야 담양군 뒤에 집들이 더러 썬나려 갓논더 날
 이 기고 물이 쥘 정지 햏 후에 그곳 농부 햏나히 물가에 지나다 보니 삼
 십여세된 녀인 햏나히 물에 썬나려 가다가 죽엇논디 으희비인 녀인인지
 으희를 반만 낫타가 죽엇다더라³⁵⁾

이들 십삼일 낱셔 홍문동셔 성명 모로논 빌어먹는 으희가 병드러셔
 거리에서 죽엇다더라³⁶⁾

잡보를 구성하는 이러한 죽음의 양상은 특별한 기능을 지닌 것은 아
 니다. 특정 담론의 배치를 위한 것도 아니며, 다만 민중들의 삶 의 고통을
 설핢 내비쳐주고 있을 뿐이며, 잡보에 실리는 잡다한 사건·사고의 일부
 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각종 살인 사건 역시 혼한 사건·사고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며, 특별히 의도된 담론배치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
 서 말한 김덕구의 죽음은 이러한 잡다한 죽음을 새로운 의미망 속으로
 편입하는데, 다시 말해 국민담론 바깥에 위치 한 죽음이라는 의의를 지니
 게 한다. 이러한 국민담론 바깥의 죽음 중 하나가 바로 독립협회와 충돌
 했던 황국협회 보부상들의 죽음이다. “새문밭 빅성들 수만명이 모히여
 부상을 막논데 병문 빅성들이 분울흔 마암으로 부상 하나를 터 죽였다
 더라”³⁷⁾, “새문에서 부상세히 빅성에게 죽엇다더라”(175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만민공동회 회원들의 부상이나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었
 음에 비해, 보부상들의 죽음은 잡보의 잡다한 죽음처럼 국민담론 바깥으
 로 배제되었다. 이처럼 보부상들의 죽음과 김덕구의 죽음 사이를 가르코

34) 『매일신문』(잡보), 1898.4.26.

35) 『매일신문』(잡보), 1898.8.31.

36) 『매일신문』(잡보), 1898.9.15.

37) 『매일신문』(잡보), 1898.11.22.

있는 분할선은 국민담론 형성의 뚜렷한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Ⅲ. ‘국민’의 분열과 위생담론, 그리고 ‘마중군’

1. 위생담론의 형성과 반민중성

국민담론의 경계와 분할선은 위생담론의 형성 과정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죽음의 위계화가 국민담론을 추동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면, 위생담론은 근대계몽기의 구체적 일상 속으로 확산되어 일반 민중들의 삶을 규율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김옥균이 『치도약론』(1882)에서 “각국의 가장 요긴한 정책을 구한다면, 첫째는 위생이요, 둘째는 농상(農桑)이요, 셋째는 도로”³⁸⁾라고 한 것처럼 위생담론은 ‘문명 개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근대기획의 하나로서 작동한다. 근대위생의 가장 큰 적은 ‘똥’이었다. ‘똥’은 우선 보기에 좋지 않을 뿐더러 위생에도 이롭지 않은 흉물임에 분명했다. “경무청에서 오서에 각히 똥 치는 기계를 보내엿다더라”³⁹⁾라는 기록을 보더라도 근대계몽기에 거리의 ‘똥’을 치우는 일은 온 나라의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생담론의 형성은 질병에 대해 근대의학의 시선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그것은 곧 타자의 시선과 다름없다. 이때 타자의 시선은 가장 일차적으로는 외국인, 곧 서양인이고, 또한 그 시선을 내면화한 계몽주의자들이다.⁴⁰⁾ 김옥균은 일찍이 외국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바 있다. “내 일찍이 들으니,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 가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말하

38) 김옥균, 『治道略論』, 『한국의 근대사상』(이민수 외 역, 삼성출판사, 1992), 89쪽.

39) 『매일신문』(잡보) 123호.

40) 고미숙, 『『독립신문』에 나타난 ‘위생’ 담론의 배치』,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앞의 책, 308쪽.

기를 ‘조선은 산천이 비록 아름다우나 사람이 적어서 부강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도 사람과 짐승의 똥·오줌이 길에 가득하니 이것이 더 두려운 일이다’라고 한다. 이것이 어찌 차마 들을 말이냐.”⁴¹⁾ 실제로 조선에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들의 눈에 “서울 거리는 좁고 불결하기 때문에 늘 오물이 널려 있”⁴²⁾으며, “모든 오물이 불결하고 좁은 도랑으로 흘러내려 도랑은 종종 폐물로 막혀 도로로 흘러넘”⁴³⁾치는 조선은 무척 비위생적인 야만의 국가였다. 따라서 조선의 계몽주의자들은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⁴⁴⁾ 이러한 타자의 시선이 내면화되는 지점에서 위생담론에 의한 뚜렷한 ‘국민’의 분할선이 생기게 된다. 문명개화의 욕망이 ‘계몽의 빛’이 미처 다다르지 못한 민중의 일상과 생존의 문제를 타자화했던 것이다.⁴⁵⁾ 확실히 위생문제에 이르게 되면 근대계몽기의 반민중적 근대기획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위생담론이 민중의 일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위생으로부터 소외된 민중들의 모습이 조금씩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빅성의게 세를 거두어 가지고 찻지 홀일이 길닥고 다리노하 주는 거신즉 우리 나라 정부에서 실상 그목덕을 잊지 안을 것갓흐면 식골 농민을 위햐야 치도햐여 주는 거시 맛당햐겨늘 도로햐 서울 장안에 만 국지를 드러 치도홈은 서울 빅성이 국은을 편벽되이 입음이라 여기사름은 나라에 세호픈 니지 안코 식골셔 농스햐여 밧친 돈으로 순포를 세워 보호 밧고 길을 이만치 나마 닷가 늦코 다니니 실정을 싱각 햐면적이 짐작이 잇슬 거시어날 좁은 골목 하나도 빅성이 닷갓단 말은 듯지 못햐였고 도로햐 대로방에서 어룬 아회 업시 얼골을 들고 리왕햐는 사름을 마주 보며 대소변을 보니 이는 나라에서 이갓치 궁핍흔 국지로 닷

41) 김옥균, 앞의 책, 90쪽.

42) 이만열 엮음, 『아펜젤러』, 조현범, 『문명과 야만 : 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서울:책세상, 2002), 124쪽, 재인용.

43) 릴리어스 언더우드, 『상투의 나라』, 조현범, 앞의 책, 126쪽, 재인용.

44) 김옥균, 앞의 책, 89쪽.

45) 정여울, 앞의 책, 27쪽.

거노흔 길을 중히 녀이지 아니하니 도리에도 틀널 썩더러 대테 이것슨 세상에 데일 천호고 더러운 야만의 풍속이라 우리 나라에 이런 악습이 잇슴은 과연 전국의 붓그러운 일이라⁴⁶⁾

치도(治道)는 위생의 핵심이다. 거리의 오물이 질병과 관계있음을 깨닫게 되었기에 치도(治道)는 문명개화를 위한 필수적인 국가사업이 되었다. 문명개화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위생관념이 투철해야 함은 물론이다. 치도(治道)를 하면서 오늘날의 경찰에 해당하는 순포(巡捕)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위생경찰의 출현을 알려준다. 그리고 정부에서 백성에게 세를 거두어 첫째 할 일이 길 닦고 다리 놓아주는 일이라는 것이라는 주장은 김옥균의 『치도약론』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위 논설의 초점은 위생치안의 강조이지만, 정부의 위생정책이 민중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까지 포함하고 있다. 시골농민을 위하여 치도(治道)를 하지 않고 서울 장안에만 국재를 들여 도로를 닦음으로써 서울 백성만이 “국은을 편벽되”게 입게 하는 것은 큰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시골에서 농사하여 세를 국가에 바치는 시골 백성과 세 한 푼 내지 않고 잘 닦인 길을 마음껏 누리는 서울 백성의 대비는, 위생이 서울의 지배계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골 백성이 위생담론의 타자로 내몰리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신문의 논설이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음은 당시의 위생치안이 얼마나 중상류 계층에 치우쳐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으며, 위생치안이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미쳐야 한다는 것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위생을 통한 질병의 퇴치와 문명국가의 건설은 당대 계몽담론의 궁극적 목적이었으므로, 위생담론 속으로 모든 백성들은 편입되어야만 했다. 동절기(冬節期) 거리의 걸인조차 머물러 살 곳을 정하여 ‘위생’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예산을 따로 마련하는 정책이 시행되기도 하였다.⁴⁷⁾ 이처럼 위생치안은

46) 『매일신문』(논설), 1898.6.29.

47) “경무청에서 니부에 보고하기를 찬괴운이 점점 더 흐디 걸인들이 참 가련 하나

민중들의 삶을 위생이라는 기준에 의해 일상적으로 규율해가기 시작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민중들은 위생치안의 타자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공동 홍살문인 마방주인 김도여가 마구간 옆헤다가 술청을 버리고 술을 팔미 지금 하절은 갓가온디 쏩니 나는 곳에서 음식을 파는거시 야만에 풍속이라 지명헌 나라 상민이 되여 그런 더러운 형스를 흐리요 음식장스가 파는 자리를 정흐도록 흐는것은 사먹는 사롭만 위흐는 것이 아니요 만니 팔니도록 흐는 상리에 당연헌 법이라 김모는 모로고 그리흐는 일이 언니와 쇼장니 순검들은 그런 무식헌 상민들을 위싱법을 ㄱ르치기를 브라오⁴⁸⁾

위 잡보는 마방(馬房) 주인 김도여의 비위생 관념을 비판하고 있다. 마구간 옆에서 술청을 벌이고, 더운 여름 똥내 나는 곳에서 음식을 파는 것이 야만의 풍속임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야만/문명의 이항대립 속에서 마방 주인 김도여는 근대적 위생담론에 의해 ‘야만’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위생관념이 없는 김도여를 계몽하는 역할을 맡은 이들이 바로 순검들이라는 사실이다. “무식헌 상민들을 위싱법을 ㄱ르치기를 브라오”라는 잡보의 서술은 순검이 위생경찰로서 ‘야만’의 백성들을 문명국가의 ‘국민’으로 계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말해준다. 『매일신문』에서 오랫동안 등장하는 “조일주장”(酒場)의 광고⁴⁹⁾는 끊임없이 ‘위생’을 강조하고 있다. “당년에 조양헌 청주는 완전이 흠이 업셔 멏히를 지내여도 맛이 변 흐지 안이흐고 위싱에도 가장 량품임을 폐장에서 보증”함을 지속적으로 광고로 내보내고 있다. 근대의 위생적 술공장과 위의 잡보에 등장하는 마방(馬房) 주인 김도여의 술집 사이에

지라 특별이 전접홀 막을 지어주어 위싱을 흐게 흐자고 흐니 니부에서 훈령 흐기를 예산을 속히흐야 보 흐라 고 흐엿다더라” 『매일신문』(잡보), 1898.12.7

48) 『매일신문』(잡보), 1898.4.21.

49) 같은 내용의 <조일주장> 광고는 1898년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20여일간 계속되고 있다.

구성되는 ‘문명/야만’이라는 이항대립의 쌍은 위생담론을 근대계몽기 속에 포진시킨다. 그러나 ‘문명/야만’의 대립항은 곧 위생담론의 반민증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위생치안의 주체인 국가는 위생처리 되지 못한 민중을 ‘야만’으로 치부함으로써 근대 ‘국민’ 속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동시에 배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렴과 배제의 이 뚜렷한 경계는 위생적인 ‘국민’이 되지 못한 민중들의 삶을 옥죄기 시작한다. ‘야만’의 문명화는 국민국가의 위생경찰의 감시와 규율 속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민중의 삶을 오히려 억압하고 파탄에 빠뜨리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던 것이다.⁵⁰⁾ 다시 말해, 위생법이 실시될수록 민중의 삶은 더욱 구질 구질하고, 더 한 층 구차하게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⁵¹⁾

2. ‘국민’의 분열과 ‘미중군’의 ‘도주’

근대계몽기의 국민담론 형성은 분할선의 확장을 통해 민중들을 국민의 영역으로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신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닌 근대의 타자로서 기층민중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흔적을 남

50) ‘똥’에 근대적 위생의 시선은 1905년 이후 더욱 부각된다. 위생을 원수로 표현하는 과격한 발생까지 등장할 정도다. “원수로다 원수로다 위생국이 실시되면 가가호호 청결하여 무병할 줄 알았더니 푼전난득 이 내 산업 일본순사 저 등쌀에 식정까지 전당잡혀 똥통설시 하였는데 놀보집이 아니어든 똥천지가 무삼 일고 그 중에도 청결비를 매호매간 이전식에 제 똥 주고 값을 내니 개화사법은 이러 한가 장래위생 고사하고 금일 당장 못 살겠네 남의 땀을 할 것 있나 똥구멍이 원수로다/ 원수로다 원수로다 치도국이 실시되면 도로교량 수축하여 편할 줄로 알았더니 여러 만큼 치도비는 어떤 양반 다 자시고 추한 모래 실어다가 외면에 만 덮었고나 동적강이 아니어든 모래톱이 웬일인가 인력거나 마차 위에 거들거려 앉은 이는 남의 사정 모르지만 도보하는 내 신세는 태산같은 짐을 지고 한 걸음이 극난일세 남의 땀을 할 것 있나 내 다리가 원수로다”(『대한매일신보』, 1908.10.23) 위생치안이 오히려 민중의 삶을 파탄에 빠뜨리거나 고통을 가중시키는 예는 『대한매일신보』에서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서울:책세상, 2001), 136~139쪽, 참조.

51) 고미숙, 앞의 책, 142쪽.

졌다. ‘국민’ 담론의 분할선은 그 타자의 영역을 점점 제거하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기층민중의 삶은 더욱 철저히 소외되고 옥죄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독립협회와 황국협회의 갈등은 ‘개화’와 ‘수구’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었으므로, 근대국가 담론 형성 과정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왔던 것이다. 근대개몽기 조선조 전체가 근대국가를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국민담론 형성 과정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것은, 서구의 열강의 침략과 이에 대한 조선조의 대응과정이 단순히 열강과 조선의 대립에 그치지 않고, 불행히도 지배층 내부의 분열혼전과 민중과 지배층의 대립이라고 하는 중층적 내부분열이 수반되어왔기 때문이다.⁵²⁾ 그렇다면, 이 시기 국민담론을 설파하기 시작한 각종 신문 속에서 온전한 ‘국민’의 바깥으로 배제된 조선인민의 모습은 부정적으로 진술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의병운동을 바라보는 신문의 시각에서도 잘 드러난다. 1895년 민비시해와 끝이어 시행된 단발령에 반발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운동은 위정척사론자인 유생들의 궤기호소에 힘입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의병운동이 서민과 더불어 동학혁명의 잔당들인 ‘동비(東匪)’를 흡수하고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896년 5월 이후 의병장들의 ‘해산안업(解散安業)’에도 불구하고 의병 대중들의 투쟁은 계속되었는데, 의병장의 사상적 동인이 尊王洋夷에 머무른 반면에 의병 대중은 반봉건적 계급적 요구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의병의 기본적 대중은 의병 해산 이후에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해서 당시의 지배계층은 ‘火賊’, ‘暴徒’ 등으로 모욕적인 어휘를 사용하거나, 각종 문헌은 ‘활빈당’, ‘동비’, ‘영학당’, ‘서학당’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⁵³⁾ 이들은 모두 조선인민으로서 각자 다른 욕망을 지니고 있었으며 근대국민국가 건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52) 김영작,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서울:청계연구소, 1991), 369쪽.

53) 이광린, 『한국근대사연구』(서울:한울, 1983), 255~270쪽.

민족국가 형성 과정에서 중간계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간계급인 부르주아 계급이 기층민중을 끌어안음으로써 개혁의 탄력적인 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지만, 기층민중들은 근원적으로 부르주아 계층의 근대기획 속에서 타자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근대계몽’이 ‘愚民論’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기층민중은 국민담론 속으로의 강제적 편입을 요구받음과 동시에 그 기준에서 탈락될 여지를 지님으로써 근대의 분할선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 타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기층민중이 극단적으로 선택한 길은 바로 의적, 혹은 활빈당이다. 사실 의적, 활빈당은 그 성격이 의병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의병, 의적, 활빈당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은 당대의 신문에서는 매우 보편적이다.

그렇다면 근대계몽기에 전국적으로 들끓었던 활빈당의 존재는 국민담론 형성 시기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신민’ 되기를 거부하는 동시에 근대국가의 ‘국민’ 되기를 거부한 이들의 투쟁은 근대계몽기의 국민담론 바깥을 떠도는 ‘유령’ 같은 타자임에 분명하다. 적어도 이 시기 신문에서 그러지고 있는 이들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근대계몽의 바깥으로 ‘도주’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래서 근대계몽기에 들끓었던 활빈당의 존재는 매우 상징적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운명은 문명개화와 더불어 곧 사라지고 말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의 ‘근대화’, 즉 경제발전과 능률적인 교통·통신과 행정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의적에 비롯한 모든 종류의 비적단이 번성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⁵⁴⁾ 근대 국가의 건설은 곧 활빈당의 존재를 궤멸시킬 것이며, 이는 ‘국민’의 타자로 여전히 남아 있던 당시의 기층민중들의 운명과 공동운명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홉스봄은 꿈 이상으로는 도저히 나타나기 힘든 혁명을 꿈꾸는 의적들이 “민중의 피의 희생”⁵⁵⁾일

54) 홉스봄, 『의적의 사회사』(황의방 역, 한길사, 1982), 12쪽.

55) 홉스봄, 앞의 책, 24쪽.

수도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근대의 신문은 문명개화와 함께 사라지고 말, ‘국민’ 바깥의 이 활빈당을 결코 바람직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안성군수 윤영렬씨가 본년 음력 십월 십오일 밤에 도적 괴수 마중군에 격서를 맡기암아 죽산짜에 와서 적한에 일은바 오봉산을 방문흔즉 당초에 업는고로 산하에서 방황 하다가 새가 밤이 임의 오란지라 풍설은 극한하고 군스는 주린빰이 잇는중에 도적에 종적은 미물하야 좃칠곳이 업는지라 이에 여념으로 차자가서 군스를 요기 식히고 안젓스즉 동리 사름이 고급하되 구봉산에서 군호하는 소리가 나더니 방포 소리가 진동한다 하거늘 윤씨가 병명을 거나리고 나아가 들은즉 과약 기언이 어늘 죽디에 병명을 지휘하야 뒤를 짜르라 하고 방포를 응 하면서 그 산하에 좃차 이르러 나무와 돌을 헛치고 올라가니 도적이 포성을 굿치고 일시에 도망하리라 산은 깊고 나무는 밀밀하중에 종적을 차질슈가 업는고로 산하 동리로 도로 내려와서 밤을 지내더니 그날 식전에 그압 외존 주막 주인이 일봉글을 드리거거늘 밝아본즉 쏘흔 마한에 글이라 윤씨가 말하되 간밤에도 도망흔 적당이 필경 근처에 잇스리라 하고 곳 다니며 형찰하야 도적 여섯슬 잡은 후에 근처 사름의 일을 바지물과 의복을 저저히 차자주고 그 주막에 붓친 방서에 하기를 금월 이십일에 룡인 성산으로 맞나자 혼고로 쏘 그리고 좃차자다 하니 윤씨는 지모담약한 과인홀뿐 안이라 충군익국 하는 목적이 세계에 들을 듯 하더라⁵⁶⁾(진한 글자;인용자)

위 잡보를 보면, 마중군⁵⁷⁾이 안성군수 윤영렬을 농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적 괴수” 마중군은 격서를 붙이기도 하고, 뒤쫓는 윤영렬에게 “일봉글”을 전달하기도 한다. 자신의 위치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정부와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안성군수 윤영렬은 마중군을 쉴새없이 뒤쫓아가는 양상을 보이지만, 도적 괴수 마중군을 잡는 것

56) 『매일신문』(잡보), 1898.12.21.

57) 마중군은 당시 도적들의 우두머리를 지칭한다. 원래는 특정인물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였으나, 차츰 도적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보통명사로서 널리 쓰이게 된다.

은 요원해 보인다. 쫓는 자와 쫓기는 관계에서 마중군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잡보는 윤영렬의 “충군이국”을 칭송한다. 마중군은 ‘신민’으로서의 윤영렬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셈이다. 190호 잡보⁵⁸⁾를 보면 윤영렬이 글로써 마중군을 ‘신민’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대목이 나온다. “속히 도라가서 은혜 연못에 목욕을 하고 이왕 더러운 버릇세 물드린겨슬 날노 새롭게 해야 하늘긋흐신 성상의 날빛에 쬐여 각각 안업 하여야 이게 가히 사름이니 슬푸다 너희 무리는 이글을 밧으라”가 그 내용이다. 다분히 봉건적인 사상에 젖은 윤영렬의 봉건담론은 마중군에게 무력하기 그지없다. 마중군은 “충청도 사람으로 갑오(1894)에는 농민전쟁에 참가하고 병신(1886)에는 의병투쟁에 투신하였다가 도망하여 군호로 널리 사람을 불러 모아 수백 리를 횡행하여 관군이 추적할 수 없었던”⁵⁹⁾ 대단한 인물이었다. 의병투쟁을 계승한 반봉건·반외세의 마중군은 1900년대까지 그 위세를 떨쳤던 인물이며, 1906년 활빈당이 쇠퇴할 때까지 끝내 체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신문은 마중군에 대해 단순한 도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마중군의 도주와 윤영렬의 추격은 근대계몽기의 국가형성 과정에서 결코 ‘국민’으로 수렴되지 않는 ‘국민’의 외부를 연상시킨다. 물론 마중군은 ‘신민’도, ‘국민’도 아닌 봉건과 근대의 틈새에서 명멸했던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중군의 ‘도주’는 ‘신민’과 ‘국민’의 바깥을 끊임 없이 횡단하면서, ‘신민’과 ‘국민’의 범주로부터 벗어나 있는 기층민중의 저항적 무의식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의적, 화적, 도적, 동비, 혹은 활빈당으로 불렸던 마중군 도당들은 근대기획이 진행됨과 동시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했지만, ‘신민’에서 벗어나 ‘국민’으로 수렴되기를 거부한 존재로서 ‘국민’의 분할선을 마음껏 가로지르는 당대의 상징적 존재로 읽히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58) 『매일신문』(잡보), 1898.12.9.

59) 황현, 『매천야록』(아세아문화사, 1978), 244쪽, 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서울: 창작사, 1986), 65~66쪽, 재인용.

IV. ‘국민’ 담론의 형성과 근대의 ‘트라우마적 기억’

1890년대 후반의 근대계몽기는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조선인민들이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뚜렷이 가지게 된 시기였다. 황국협회와의 갈등 속에서 해산되는 비극적 불행은 오히려 ‘국민’이라는 가치를 내면화시켰음에 분명했다. 조선인민들이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통해 새로운 국가상을 꿈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입헌군주제에 바탕한 근대국가로의 잠재적 이행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기층민중들조차도 만민공동회를 통해 ‘국민’으로서의 자기발견에 환호하고, 김덕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국민’으로서의 정신적 통합이라는 새로운 근대적 가치를 경험했던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문명개화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었다. ‘국민’ 담론은 ‘신민’으로부터 벗어나 수평적이고 통합적인 일체감을 지니게 함으로써 개화한 문명을 향하게 하는 계몽의 열정을 선물했다.

그러나 ‘문명개화’를 부정하고 반봉건과 반외세에 머물렀던 민중들은 결코 ‘국민’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었다. 당시의 신문이 의병과 동학교도조차도 ‘적당’이라거나 ‘야만’으로 매도했던 사실은 당시 국민담론이 얼마나 배타적이었는가를 말해준다. ‘국민 되기’는 곧 ‘문명개화’였으며, 이는 서구 근대와의 동일화를 수락하는 곳에서 출발한다. 그런 점에서 “문명개화는 협소하고 자족적인 공동체 세계에 사는 민중을 국가의 민(民)으로 하기 위한 정신세계의 재편성과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가에서의 유익함과 무익함, 가치와 무가치, 개화와 야만·우매함을 명확한 분할선으로 준별하여, 그것을 납득시키는 것이었다.”⁶⁰⁾ 그 납득은 배제와 배척이 미리 전제되어 있었다. 황국협회 회원마저 ‘조선인민’이자 ‘동포’로 인식되곤 했고 이들의 죽음 또한 ‘가공’의 대상이긴 했지만⁶¹⁾, 근대 신문은

60) 츠루마키 다카오, 『민속의 문명화』, 『국민이라는 괴물』(니시카와 나가오, 소명출판, 2005), 164쪽, 재인용.

61) “또 들은즉 부상 셋시 죽었다 하니 그도 또한 가공호도다”, 『매일신문』(잡보), 1898.11.23

이들을 결코 ‘국민’으로 부르지는 않았다.

1905년을 전후로 등장하는 ‘민족’담론의 토대가 될 이 ‘국민’ 담론은, 단결과 통합에 장애가 되는 ‘내적(內敵)’을 유대인이나 아일랜드 출신 등의 타족(他族)에서 찾았던 유럽과 달리 종족적으로 동질적 조선에서는 개화에 방해되는 자들을 제거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⁶²⁾ 그리하여 이 전방위적인 타자의 확장은 기층 조선인민들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했다. ‘문명개화’에 대한 신념과 사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대타적 성격의 소외와 배척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생담론의 분할선에서 선명히 드러나는 기층민중의 삶은 ‘국민’의 영역으로 결코 편입될 수 없는 소외의 한 지점이었다. 그 분할선은 근대 기획과 규율에 의해서 타자의 영역을 점점 옥죄면서 축소시켜나갔다. ‘국민’ 담론의 바깥에 머물렀던 이들은 근대국민국가 기획에 따라 억압·재편성되는 지속적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제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처럼, 근대계몽기에 있어서 국민 담론 형성과정은 거대한 ‘서사적 기억’을 이룬다. 그것은 국민적 기억의 서사다.⁶³⁾ 근대 신문의 논설들이 지니는 일목요연한 국민 담론은 일정한 질서와 논리를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거대한 서사적 기억을 형성한다. 그러나 국민담론의 층위 아래에서 삶의 밑바닥을 기는 조선인민, 즉 기층민중들의 삶은 잡보란을 통해 어떠한 논리와 질서도 없이 무수히 출몰한다. 이들의 삶은 ‘국민’ 담론 아래를 흐르는 ‘트라우마(traua)적 기억’으로만 존재한다. 국민 국가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이 ‘트라우마적 기억’이야말로 다시 호출하여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국민’의 분할선은 오늘날에도

62) 박노자, 앞의 책, 250쪽.

63) “모든 국민적 기억의 서사들은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고 수미일관하여 의미로 충만하다. 정신분석학자 주디스 허만(Judith Herman)의 용어에 따르면, 전자는 ‘트라우마적 기억’이며 후자는 ‘서사적 기억’이다. 분명한 것은 ‘서사적 기억’으로서는 죽음과 폭력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질서정연한 통사적(統辭的)-통사적(通史的) 서사는 기억을 박제화하고 망각을 유도한다.” 김철, 『국민이라는 노예』(서울 : 삼인, 2005), 9쪽.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배척되고 소외된 새로운 '트라우마적 기억'들이 국민국가의 지반 깊숙이 흐르고 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 담론 형성 과정에서 이미 발생하기 시작한 균열과 그 상처의 기원은 오늘날 국민국가의 지반 아래에 잠복된 균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성찰의 근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주제어 : 매일신문, 근대계몽기, 국민, 죽음, 위생, 담론, 김덕구, 활빈당, 마중군, 분할선

참고문헌

1. 자료

『협성회회보』, 『매일신문』, 『독립신문』, 『황성신문』

2. 참고자료

-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서울:책세상, 2001
- 김동식, 『신소설에 등장하는 죽음의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11집, 한국현대문학회, 2002.6
- 김영작,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 서울:청계연구소, 1991
- 김옥균, 『治道略論』, 『한국의 근대사상』, 이민수 외 역, 삼성출판사, 1992
- 김 철, 『국민이라는 노예』, 서울:삼인, 2005
- 공임순, 『식민지의 적자들』, 서울:푸른역사, 2005
- 유길준, 『서유견문』, 허경진 역, 서울:서해문집, 2005
- 이광린, 『한국근대사연구』, 서울:한울, 1983
- 이승원, 『학교의 탄생』, 서울:휴머니스트, 2005
- 이이화, 『한국사이야기 · 14』, 서울:한길사, 2003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서울:소명출판, 2004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서울:소명출판, 2006
- 정여울, 『근대계몽기 민족담론의 경계와 그 균열』, 『한국근대문학연구』 8호, 한국근대문학회, 2003.10
- 조현범, 『문명과 야만 : 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 서울:책세상, 2002
-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 · 1』, 서울:현암사, 2004

- 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서울:창작사, 1986
- 최현식, 「근대계몽기 서사문학에서 민족국가의 상상력과 매체의 상관성」, 『현대문학의 연구』 23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7
- 니시카와 나가오, 『국민이라는 괴물』, 서울:소명출판, 2005
-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윤희숙 역, 나남출판, 2002
- 안쏘니 기든스, 『민족국가와 폭력』, 진덕규 역, 삼지원, 1993
- 에드가 모랭, 『인간과 죽음』, 김명숙 역, 동문선, 2000
- 에르네스트 르낭, 『민족이란 무엇인가』, 신행선 역, 책세상, 2002
- 크리스 하먼, 『민족문제의 재등장』, 배일룡 역, 책갈피, 2001
- 홉스봄, 『의적의 사회사』, 황의방 역, 한길사, 1982

<Abstract>

A Formation of Citizen Discourse and Era of Crack

Park, Dae-Hyun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observe the aspect and the era of the crack which occurs inevitably from citizen discussion formation process of Korean efflorescence. Maeil-sinmun(Everyday newspaper), which is published on latter half of 1890's, shows the modern time desire which it collects Chosun(Korea)'s people to monolith of citizen. But the other inside Chosun, occurred by the modern times of enlightenment, starts to bring about the crack of modern citizen discussion.

The discussion practice in a editorial belongs to from the middle class and the life of the general layer populaces was estranged from enlightenment discussion and becomes the other. Otherwise, general news show without reserve a living of proletarian populace which falls down with the other of the modern time which is located outside of the divided line of the enlightenment discussion from the viewpoint of citizen, death, sanitary discussion.

In the modern times of enlightenment, the global competition has been interiorized and the patriotism of the citizen for the nation acquires the representation of death. The representation example is rightly Kim Duk-Ku's death. Kim Duk-Gu has become the object of the collective grief, so the representation of death, which was ranked

as the citizen cherishing object, has more strengthen a citizen discussion. In case the death of Kim Duk-Gu is inside of citizen discourse, death also exists outside of citizen discourse. Populaces which are countless appears in general news dies to be caused by with the life difficulty which becomes impoverished and dies outside of citizen discourse. Also Kim Duk-Gu's death and peddler's death is classified roughly into two types of grief and miscellaneousness, so it shows the divided line which it splits citizen discussion.

The divided line of citizen discourse becomes known clearly even from sanitary discussion formation process. From the viewpoint of a sanitary problem, anti-populace modern time planning of the modern times of enlightenment becomes known clearly. The features of the populaces which are estranged from sanitation starts to be embossed in the process where the sanitary discussion is diffused with daily of the populace. Considering a non-sanitary populace as savage, the nation which is a subject of sanitary security had been making the non-sanitary populace not only belong to modern time citizen but also be excluded from. The clear divided line of collecting and excluding had tighten the life of the populaces which does not become a sanitary citizen. As The civilization of the savage had been advanced with a blitz in a watch and discipline of sanitary police of the citizen nation, so a life of the populace had gotten into pressures and failure rather.

Most of nation had swarmed with the existence of Hwalbin-party(thieves of relieving poverty), which had been the other like the ghost who drifts outside of citizen discourse, with refusing to become the citizen. Existence of Majunggun(a leader of Hwalbin-party) is

associated with the outside of the citizen which is not assuredly collected with the citizen in national formation process of the modern times of enlightenment. Of course, Majunggun had been not a subject or citizen, but only the people which blinked between the feudalism and modern time. Although the gangs of Majunggun are the existence which is must be disappearing simultaneously with modern time planning advanced, they are enough to be thought of symbolic existence of those days which traverse the divided line of citizen as the existence which had refused to belong to citizen.

As stated above, the lives of a enlightened citizen and non-enlightened citizen(a proletarian populace) is parted clearly from the viewpoints of citizen, death and sanitation, showing the era of the citizen discourse crack which result from formation process of citizen discourse in the modern times of enlightenment.

Key Words : Maeilsinmun(Everyday newspaper), the modern times of enlightenment, citizen, death, sanitation, discourse, Kim Duk-Gu, Hwalbin-party(thieves of relieving poverty), Majunggun(a leader of Hwalbin-party), a divided line